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土種 홍화씨
 弘陽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지역 弘陽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일종의 품종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 전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60)070-1300

점 하나 획 하나 구도여정

탱화 그리는 보살들

섬세함과 부드러움으로
 佛母의 맥 잇기 열심



‘탱화 그리기’를 서원한 여성 불자들이 늘고 있다. 작품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인내가 요구되는, ‘고행’ 그 자체인 ‘탱화 그리기’는 최근까지만 해도 스님이나 남성의 전담 영역이었다.
 스스로 ‘탱화작가’ 이길 자처하는 이 여성들은 전승공예 대전과 불교미술대전에서 무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고영을(45·광주여고 교사)씨는 97년 프랑스 파리에서 초대전을 갖고 불화의 아름다움을 유럽인들에게 선보였다.
 이들은 무형문화재 단청장·탱화장 보유자인 민봉·구봉 스님과 전연호씨 등에서 10년 넘게 습지를 보내며 ‘여성’ 이기 보다는 ‘예비 장인’으로서 여성 특유의 섬세한 필치로 탱화를 그리는 ‘佛母(佛母)’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 점 한 획을 더하며 정도의 세계로 나아가는 ‘탱화 그리기’, 그것은 구도의 여정이다.

불화연구소 설립 후진양성

박정자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후보 박정자(61)씨. 선긋기에만 3천장의 과자를 냈던 습작시절의 열정과 감동이 지금도 붓을 들면 여정할 만큼 불화 그리는 일에 빠진 불모(佛母)다.
 89년 전승공예대전에서 ‘금니부묘은종경’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래 지금까지 박씨가 그린 불화는 모두 5백여점. 대부분 3대 국보사찰 중 하나인 전남 장흥의 보림사를 비롯 전통공예관 등에 전시되어 있다. 섬세하면서도 화려한 색채의 대작(大作) 불화로 유명한 박씨의 특기는 금니 여래나 보살. 그래서 박씨는 ‘못지 못할’ 일화에서 불화 그리는 마음 자세를 새롭게 배우기도 했다.
 ‘작품이 크니까 얇고 얇아 작업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부처님 얼굴에도 앉아야 하므로 처음에는 민망스러웠지요. 그런데 ‘무심’이 바로 불심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니가 민망하다는 생각 대신 환희심이 일더군요.’
 박정자씨는 한겨 고행한 무주에 불화연구소를 세우고 불화 그리기와 후진 양성에 몰두하고 있다. 이미지가 다 틀리는 3천불을 보시기 위한 가늠을 잡기 위해서다. 이것은 그녀의 오랜 서원이기도 하다.

탱화 속에 역사비평도 담아

고영을 고영을(45·전남여고 교사)씨는 광주에서 19년간 부처님의 얼굴과 사상을 고집스럽게 그려온 탱화작가다. 고씨가 탱화 그리기를 시작한 것은 81년. 대학원 졸업논문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본 불화에 감명 받고, 광주시 지정 탱화장 고 구봉스님을 찾아갔던 계기가 됐다.
 그녀의 불화 세계는 ‘법고창신(法古創新)’. 단색 찬에 해운 금니 작업을 다양한 색깔의 염색현에 시도하고, 기존 탱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나뭇잎·연꽃·독도·성모마리아 등의 다양한 소재를 자유롭게 수용한 그녀의 작품과 가장 어울리는 한자서체다.
 고씨가 이런 작품 세계를 추구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말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도식적으로 설명·묘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역사의 비평적 시각까지도 담아내고 싶었던 것이다. 미술계가 그녀의 작품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요즘 매년 5월 광주 금호미술관에서 갖게될 개인전 준비에 여념이 없는 고영을씨는 ‘불화의 현대화·대중화는 전통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탱화의 기능을 ‘예술’로 승화시킬 때 가능합니다’라며 ‘내년에 열리는 개인전에서 ‘전통과 현대가 본래 하나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불화서 색채·구도 배워

원화연 원화연(36)씨는 옛 화승의 초를 밤새워 베끼며, 성물(聖物)의 경계와 예술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장인이길 13년간 노력해 온 불모다.
 원씨는 ‘고려불화’와 비견될 수 있는 탱화를 그리는 작가가 되고 싶어한다. 고려불화는 우수한 안료와 선명한 색채 그리고 자연스러운 구도로 가장 뛰어난 예술성이 표현된 탱화로 꼽힌다.
 원씨는 “조형적으로 뛰어난 예술성을 담고 있는 탱화는 일반인에게도 친숙한 순수 창작예술의 한 분야 즉, 불화로 거듭 태어난 것”이라며 “전통과 현대적 감성이 조화를 이룬 창작 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원씨는 천연 안료를 조사·연구하고, 자체 순서를 수없이 실험한다. 또 고려불화의 ‘초(抄)’를 기본으로 선(線)의 구도를 분석하고, 입체적인 구도 잡기에 밤을 한양계 지새운다. 아름다운 불화가 실내를 불살아 짓든 공간으로 꾸미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다.

1962년 단청·탱화장 지정 전승자 500여명...여성 7~9명

우리의 유산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탱화는 ‘신앙’과 ‘교화’의 뜻을 담고 있는 불교미술이다. <신수대장경>에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기원정사 처마 벽면에 본생사 등을 그리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부처님 생전 때부터 탱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357년에 만들어진 안악 제3호 고분의 벽면에 불교 미술적인 구름·연꽃무늬가 그려진 것으로



86년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박정자의 ‘금니부묘은종경’ 연작중 ‘생자방유문’.



탱화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고영을씨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 97년 프랑스에서 열린 초대전에서 호평을 받았던 작품.

불화에 매료 대학원서 이론 공부

최문정 대학에서 ‘체육학’을 전공했지만, 단청장 민봉 스님에게서 10여년 탱화를 배운 최문정(32)씨, “삼라만상을 녹일 듯한 강렬한 색감과 불화의 꼭 찬 포만감에 끌려 배우게 됐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표현한 탱화의 오묘함에 매료된 것이다.
 기술보다 ‘도’를 강조했다 스승의 가르침을 현시도 잊지 않고 있다는 최씨는 불국사 무설전 지정탱화를 그림 때, 매일 불경을 외우고 참선하면서 마음을 닦고 ‘초’를 대할 만큼 독실한 불자다.
 최문정씨는 요즘 작품보다는 ‘불화이론’ 공부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올해 초 중국대 대학원에 입학, 체계적인 불교미술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 장인은 항상 변화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녀의 지론처럼, 불교미술 석사과정은 그녀의 ‘화업 수행’이다.

인조안료 대신 석채사용 고집

김성희 98년 불교미술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김성희(31)씨. 그녀의 작품은 명암을 두드러지게 하는 바름길 솜씨가 뛰어난 입체감이 돋보이고, 섬세함과 부드러움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게 특징이다.
 그녀는 유독 전통불화를 고집한다. 인조안료를 사용하는 대신 들가루로 만든 석채를 쓰며, 구도나 색채에서도 전통불화의 맥을 잇고 있다. 불화의 심부름 현대화는 자칫 국적없는 그림을 만들기 십상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녀를 가르친 전연호씨의 스승이 바로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인 석정스님. 전통불화를 잇고자 하는 사조(師傳)의 ‘고집’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한다는 김성희씨는 대학에 진학해 이론적 바탕을 심화할 꿈을 갖고 있다.
 오종옥·이윤호 기자(gobaeou@buddhapia.com)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6호 계신리 마애불.

마애불을 찾아서

신이 많고 바위가 많은 우리나라의 거대한 바위나 절벽에는 선각이나 돌을 새긴 기법으로 불 보살상들이 많이 새겨져 있다. 조각의 계피 연구나 시대연구에 가장 귀중한 자료가 되는 마애불은 불상연구에 있어서는 안될 중요자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처지에서 지비로운 미소로 불자들을 반겨주고 있는 마애불들을 선별해 소개한다. 대한민국불자포교사진연합회들이 찍은 이 마애불들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아름다움과 깊은 신심이 불자들에게 경건한 귀의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편집자 주)

계신리 마애불

당당한 모습에 미소 감돌아 고려초 조성...3중 원광 특징

경기도유형문화재 제96호인 이 마애불은 남한강을 굽어보고 서 있는 경건한 바위에 드드라지게 새긴 것으로 관세와 대좌를 모두 갖추고 있어 고려초기를 대표할 만 하다. 원만한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감돌고 있고 살진 양 볼은 다소 형식화가 엿보인다. 그러나 움직임 표현할 유쾌라든지 3중의 원형 두광과 그 둘레에 새겨진 화염문은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연꽃대좌위에 당당히 서 있는 신체는 생생하고 탄력감이 넘친다. 양 어깨를 감싸고 있는 불의(佛衣)가 양쪽 팔에 걸쳐서 무릎 아래까지 내려와 인자함을 이룬 몸이나 내외에 보이는 마애불과 원광 어깨를 감싼 가사의 표현 또한 뛰어난 솜씨를 보여준다. 오른손은 올려 어깨쪽으로 외장하고 왼손은 옆으로 펼친 특이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부처님보다 다소 형식화된 면은 보이지만 당당한 모습과 유려한 의문(衣紋), 세련된 연꽃 대좌 등은 고려시대의 이 지방불상양식을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사진·글=불자포교 사진연합회 제공

불자포교 사진연합회

가정에 부처님사진 모시기 전개

사진을 사랑하고 사진으로 불교교리에 적극 나서겠다는 원력을 가진 불자들 20여명이 모인 신행단체가 대한민국의불자포교사진연합회(회장 고준은, 이하 ‘포교사진연’)이다. 지난해 4월 창립한 포교사진연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 ‘불자가정에 부처님사진모시기’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마애부처님 촬영’이다. 원만한 상호의 부처님을 가정마다 모시면 행복도 건강해지고 한층 불심이 살아날 것이라는 취지에서 흥성 미륵암의 마애부처님 사진을 12x14 사이즈로 뽑아 원하는 가정에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지금까지 배포된 수량은 30여점. 포교사진연 고준은 회장은 “초야에 불이 재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마애불을 발굴, 적극적으로 그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싶다”고 말한다.
 또 어린이포교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귀엽고 친절한 상호의 부처님을 촬영, 어린이불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올 가을에는 첫 회원전도 열 계획이다. 포교사진연은 사진에 관심 있는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011-337-7312
 이경숙 기자(jelee@buddhapia.com)